

With KAU Webzine

Seventh Steps

하늘에 남는 길 새내기가 그릴 길

새내기성공센터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새내기성공센터 2021-2 3중멘토 활동

‘몽쳐서 e기자’ 새내기 e스포츠대회	2
2021 새내기 KAU 자랑 공모전 우수작 선정	3

재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이야기

비행운 (멘토가 지나간 자취를 잘 따라 왔으면..)	4
M and U (멘토 그리고 너)	6
softie (젠들하고 정이 많은 의미)	8
송골송골매 (땀이 송골송골 나올 만큼 열심히 활동하자)	9
DRONING (당차게 굴러간다는)	10
항뽕래기 (뽕시래기오 항공대를 연결하는 항공대의 새내기)	11
무야호 (재미있고 활기찬 팀의 분위기)	12
플라이 자전 (항공에 관심이 많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13
아람 (우리 모두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	14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너무 시끄러운 고독	16
------------------	----

12월 웹진 퀴즈 이벤트

With KAU 웹진 퀴즈 풀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19
------------------------------------	----

새내기성공센터 2022년 1월 일정

이달의 행사 일정	21
-----------------	----

온라인 비대면 게임대회 ‘뭉쳐서 e기자’ 새내기 e스포츠대회

승리

4인자의 합력 · 사용자 설정 · 34.44 · 2021/11/17 · 게임 ID: 5572235302

점수표	개요	통계	그래프	문
1번 팀 22 / 21 / 36 66,882				
17	윤선 혜경서	3 / 3 / 7	209	12,261
17	프랑스한 노동자	11 / 4 / 1	274	17,681
16	배달기사장류라	2 / 4 / 12	257	13,106
13	신입생최갑득	0 / 6 / 10	27	8,497
17	백수 코방	6 / 4 / 6	265	15,337
2번 팀 21 / 22 / 38 61,096				
14	민트꽃여사관문	1 / 8 / 5	138	9,914
16	양현우부담	1 / 4 / 15	211	12,544
17	양정민데	10 / 4 / 4	271	15,022
16	21알핀디(eddy)	7 / 2 / 5	254	14,673
13	그대 노 제비오오	2 / 4 / 9	40	8,943



새내기성공센터는 제47대 비트윈 총학생회와 2021학년도 온라인 비대면 게임대회 ‘뭉쳐서 e기자’ 새내기e 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와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으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21학번 새내기 멘티와 선배멘토를 포함하여 새내기성공센터 3중멘토팀 대상으로 팀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재학생멘토 &멘티들의 학업과 코로나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를 함께 풀고, 멘토&멘티의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 됐다.

예선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각자 PC 활용 가능장소에서 진행하고 크레이지 아케이드(12팀)와 리그 오브 레전드(22팀) 총 158명이 참여하여 게임 대회를 진행 하였다. 상금은 팀원들에게 우승팀 30만원, 준우승팀 20만원, 3위팀에게 10만원씩 각각 지급됐다. 이번 e스포츠 "뭉쳐서 e기자" 대회의 우승은 크아황제팀 (크레이지 아케이드), 소학풍선팀 (리그오브레전드)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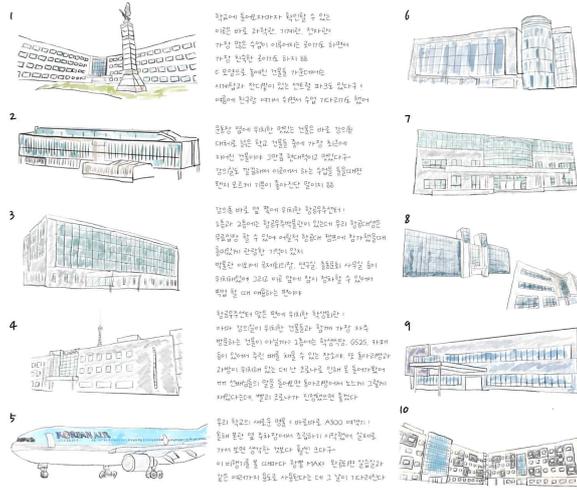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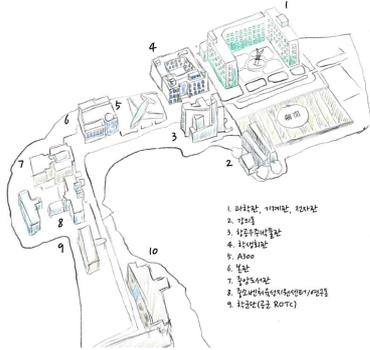
크레이지 아케이드에 참여해서 우승한 ‘크아황제팀’의 주장 김성우(항공운항학과 19) 학우는 “매 경기 전 연습을 하고 작전을 세워가며 팀원과 협력한 것이 우승한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를 진행할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전했고 리그 오브 레전드에 참여해서 우승한 ‘소학풍선팀’의 주장 문경현(소프트웨어학과21) 학우는 "E스포츠대회를 진행하면서 연습과 경기를 하며 팀원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그 덕분에 같은 학과에 친한 사람들이 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내기만 참가할 수 있는 E스포츠 대회 뿐만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E스포츠 대회들이 많이 개최 됐으면 좋겠습니다."고 전했다.

센터 담당자는 “새내기 e스포츠 문화가 교내에 정착 돼기를 바라며, e스포츠 대회 뿐만 아니라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명랑운동회도 개최하여 3중멘토링 활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1 새내기 KAU 자랑 공모전

우수작 선정

신입생과 함께하는
KAU 캠퍼스 맵



새내기성공센터는 새내기들의 학교자랑을 통한 대학의 관심을 유도하고 순간을 기억하여 대학전반에 대한 점점 및 발전방향을 도출 하고자 "새내기 KAU 자랑 공모전"을 진행하고 심사를 마치고 수상자와 당선작을 발표하였다. 새내기 KAU 자랑 공모전은 ▲우리 대학 및 학과의 특별한 모습과 매력 자랑 ▲우리 대학만의 전통과 문화 자랑 ▲나만 알고 자랑하고 싶은 핫플 ▲내가 그리는 캠퍼스 맵 등 새내기들만 참여하는 공모전이였다.

먼저, 새내기들이 바라보는 대학의 자랑을 소개하고 우리대학 특성이 잘 반영된 소재를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여 대학에 대한 관심을 통해 긍정적인 대학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12점이 응모되었으며 수상작은 총 5점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작은 모음집으로 작성하여 센터 홈페이지 및 SNS 웹진을 통하여 게재되었다.

새내기 KAU 자랑 공모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학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KAU 자랑 공모전을 매개체로 학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순간을 기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공모전에 참여한 한 학우는 "캠퍼스를 많이 방문해보지는 못했지만, 대학 신입생으로서 가장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캠퍼스였고 적은 횟수지만 돌아다니며 받았던 느낌과 감정, 경험 등을 표현하여 코로나 이후의 캠퍼스를 상상하며 즐거운 대학생활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학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새내기들이 KAU 자랑 공모전에 동참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비행운”
멘토가 지나간 자취를 멘티들이 잘 따라오길 하는 바람입니다.

첫 만남.



3월



4월

팀명 활동목적

▣ 비행운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하여 시간관리 노하우 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우리 뭐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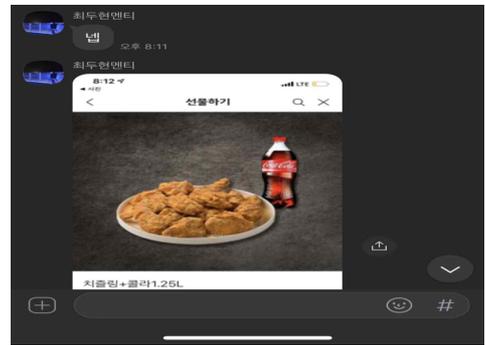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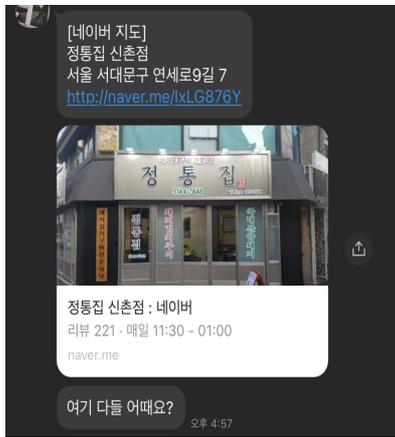
- ▣ 캠퍼스 탐방을 팀으로 나눠 하기 직전 서로 궁금한점 들이나 공통된 관심사들을 물으며 서로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 함진행 함.
- ▣ 멘토와 멘티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4명에서 3번 만남.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수업을 듣는 곳, 나중에 대면수업을 할 시에 실수 있는 곳을 알려줌.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비행운”
멘토가 지나간 자취를 멘티들이 잘 따라오길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활동

5월

7월



우리 뭐하지?

- 항우기 멘토들 끼리 eSports 대회를 열어 경쟁했으며 본 멘토가 팀원으로 참가했으며 각자 팀과의 팀워크, 협동심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고, 우승이라는 결실을 통해 더욱더 끈끈해질 수 있었으며 롤 대회 우승한 기념으로 롤 대회 참가한 인원끼리 상금으로 회식을 하며 친목을 도모함.
- 열품타 스터디 대회를 개최하여 공부에 대한 집중도와, 동기를 부여해주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대회를 개최함..
- 방학 계획 발표회를 열어 각자 자신의 방학 계획을 말하고 멘토에게 조언을 듣거나 멘토 본인의 방학 경험등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짐.

항공전자정보공학부 “M and U(만두)”

팀명인 ‘m and u(만두)’는 mentor and you ‘멘토 그리고 너’라는 뜻으로 멘토와 멘티 개개인의 친밀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첫 만남.

[

3월



5월



]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M and U(만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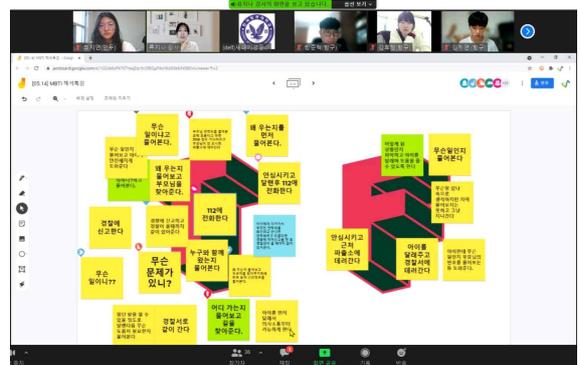
- ☆ 새내기들의 낯선 대학생활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주기
- ☆ 멘토멘티 활동이 끝나도 계속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친목 다지기
- ▣ 멘토멘티 처음 활동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를 오지 못했던 멘티들을 위해 학교 탐방 기회를 마련함. 복사실에서 프린트하는 법,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진인증으로 남기며 학교 굿즈를 받을수 있는 활동을 함. 그리고 음료를 마시며 서로 친밀감을 갖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짐.
- ▣ 코로나 19로 인적 드문 서울숲에서 만남을 가졌음. 맛집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서울숲을 걷고 간단하게 다과를 하며 친해지는 기회를 마련함.

항공전자정보공학부 “M and U(만두)”

팀명인'm and u(만두)'는 mentor and you'멘토 그리고 너'라는 뜻으로 멘토와 멘티 개개인의 친밀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활동.

5월



7월



우리 뭐하지?

- 자신의 MBTI를 분석하고 멘티들의 MBTI를 알아보게 되어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고, 여러 상황에 대해 멘티들과 토론했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
- 여러 학문 분야를 탐색해 자신의 진로 설계를 해나갈 수 있는 전공데이 행사에 참여함. 선배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공에 대한 정보와 대학 생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기숙사에 사는 멘티들과 대면수업이 있는 멘티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그간 있었던 일상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짐. 또한 앞으로 있을 기말고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보냄.

소프트웨어학과 “softie”

Software의 soft, 친절하고 정이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softie 단어를 활용했습니다.

첫 만남과 우리활동.

3월



7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softie

- ☆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좋은 추억을 쌓는다
-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입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유도

- 5인 집합 제한으로 인하여 소수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앞으로 어떻게 멘토 멘티 활동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 서로 하고 싶은 말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음.
- 다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였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쉽지만, 잘 따라와 준 멘티들에게 고마움을 전함.

신소재공학과 “송골송골매”

송골송골매 팀은 땀이 송골송골 나올 만큼 열심히 활동에 참여할 거란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만남과 우리활동.

3월



7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송골송골매

- ☆ 새내기들 간의 우애 형성 및 진로 탐색
- ☆ 새내기들의 대학생활 적응 보조

▣ 학교 현황 파악과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으로 멘티들과 학교 시설을 탐방하고 흥대입구역으로 가서 주변 맛집을 탐방하며 친목을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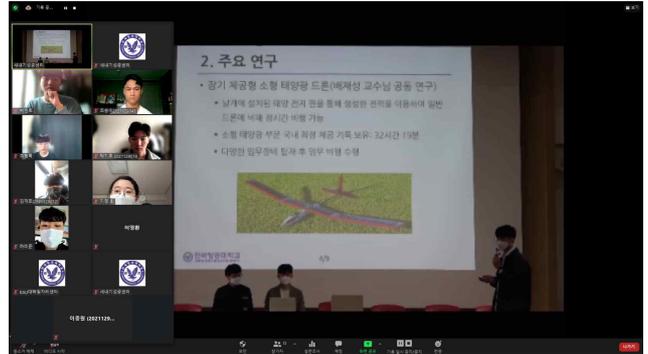
▣ 멘티들이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으며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대학생활을 누구보다 잘 즐기길 바랐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아쉬움이 컸으나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좋은 인연으로 남기를 바람

스마트드론공학과 “DRONING”

새로 생긴 스마트드론공학과가 당차게 굴러간다는 의미로 drone 에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의 접미사 -ing 를 붙여서 droning 이라고 지었습니다.

첫 만남과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 DRONING

☆ 새내기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스마트드론공학과 관련 랩실에서 연구하는 선배들을 초청해 새내기들을 위한 학습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개인적인 질의응답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기본정보를 접하는 시간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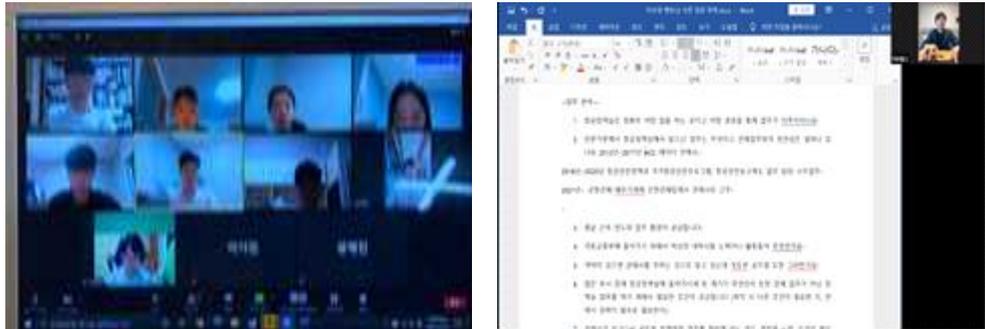
▫ 우리대학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졸업 후 일산 MBC+ 제작지원팀에 3년차 근무하시는 선배를 모시고 방송용 드론을 운용 및 관리하며 방송용 영상을 촬영하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하며 향후 전공진로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개별 진로 구상하는 계기를 조성함

우리 뭐하지?

항공교통물류학부 “항뽀래기”

항뽀래기는 “항공대 뽀시래기”로써 새내기의 의미인 뽀시래기와 항공대를 연결하여 항공대의 새내기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만남과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 항커

- ☆ 새내기들의 대학생으로써의 첫걸음을 같이 돕기 위함
- ☆ 활동을 통해 멘토, 멘티 간 친밀감과 공감대 형성을 위함

- ▣ 항공교통물류학부에서 2학년 대상 통계학개론 강의를 담당하시고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UAM의 상용화 및 운용에 대해서 공동연구와 새내기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
- ▣ 항공교통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배와의 대화 자리에 앞으로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새내기들을 초대하여 같이 졸업하여 현직에 계신 선배들에게 질의 응답으로 다양한 정보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함

우리 뭐하지?

항공운항학과 “무야호”

재미있고 활기찬 팀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첫 만남과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무야호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하여 시간관리 노하우 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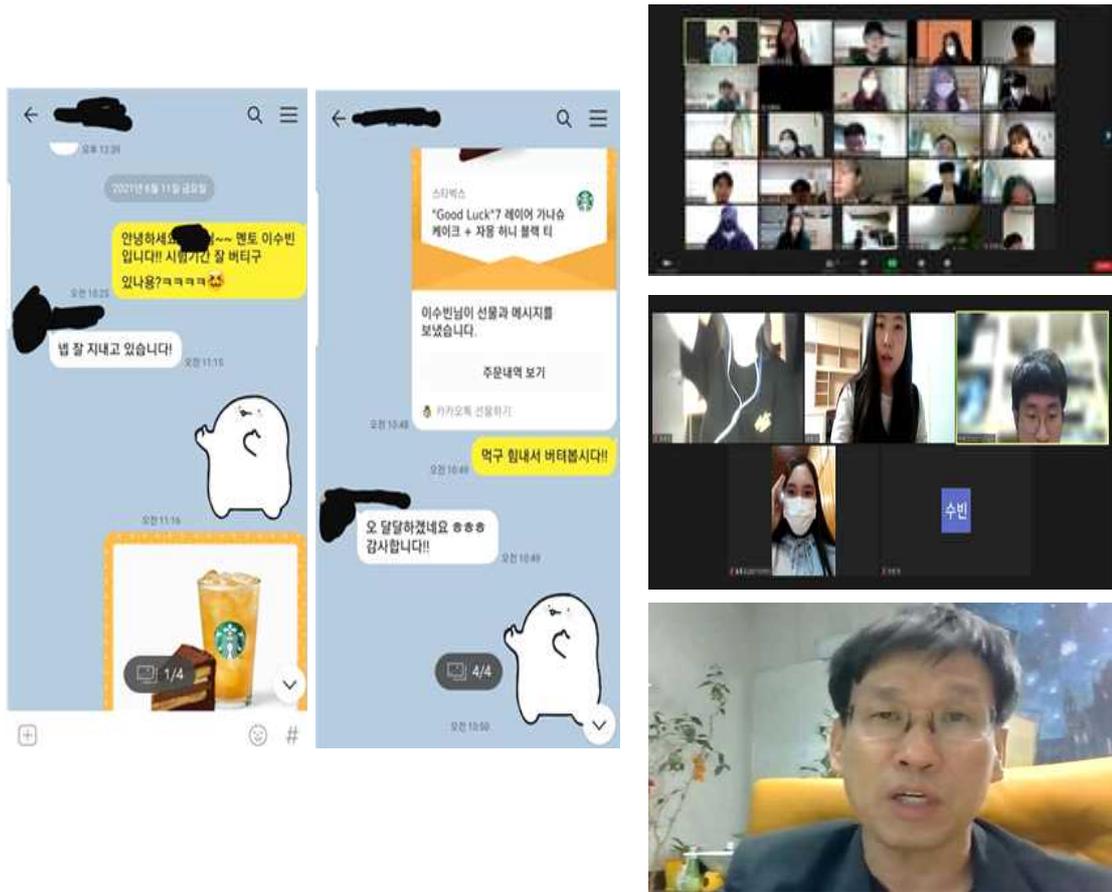
-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미션을 진행하며 무야호 조의 역할분담을 진행하고 총무부, 자료부, 계획부로 나누어 서로의 임무를 부여하여 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며 주기적인 연락하기 챌린지를 통하여 궁금증 해결과 짧은 통화 or 카톡을 병행하며 멘티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짐
- 운항학과 지도교수와 졸업 선배와의 자리를 마련하여 전공정보와 진로방향을 모색하길 자리를 마련 함.

자유전공학부 “플라이 자전”

항공에 관심이 많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모여 활동을 한다는 의미로 항공사 이름을 모방하여 명명하였습니다.

첫 만남과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플라이 자전
 - ☆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멘티들에게 친목의 기회 제공
 - ☆ 멘티들이 궁금해하는 공부 방법, 전공관련 등의 정보 제공
- 지도교수 간담회를 통하여 각 멘티들의 2학기 계획을 답변하고 상의하며 자유전공학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공에 관심이 많아 개인적으로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멘티들이 많았음
- 코로나 영향으로 대면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정기모임을 통하여 팀원 친목 및 고민 혹은 근황 이야기를 나눔
- 재학 입학 후 첫 시험기간으로 힘든 점, 궁금한 점을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시험 응원 야식 기프티콘 전달 함

경영학부 “아람”

아람이란 “탐스러운 가을 햇살을 받아 저절로 충분히 익어 벌어진 과실” 이라는 뜻인데, 멘토링 활동이 끝날 때쯤 우리 모두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람’이라는 팀명을 짓게 되었음.

첫 만남.

3월



외부졸업생 간담회 수요조사

복수전공 - 경영부교 - 2021년 4월 8일 오후 5:35

제주항공	4명
삼창강정방기법업	2명
국세청	3명
하이머커넥트	1명
버밍엄대학	1명
한국산재보험연구원	0명
신한은행	2명
별지화학	0명
KAI	6명
미디어로그(LG U+ 지회사)	0명
한국남동발전	1명
로지스올(LogisAll)	2명

4월



팀명

활동목적

▣ 아람

- ☆ 유흥 뿐 아니라 진로에 관련해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 ☆ 시험 기간, 모두의 학점 관리를 위해 서로의 공부법 전수

우리 뭐하지?

- ▣ 학기초에 지도교수 상담을 진행하여 경영학부의 졸업 후 진로와 커리큘럼을 안내받고 이수학점, 복수전공 등 여러 설명과 함께 교환학생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얻는 자리는 마련 함.
- ▣ 외부전문가 멘토와 간담회 준비를 위하여 멘티들과 상의하고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하여 KAI에 재직중인 선배님과 취업준비를 위한 여러 정보를 얻는 자리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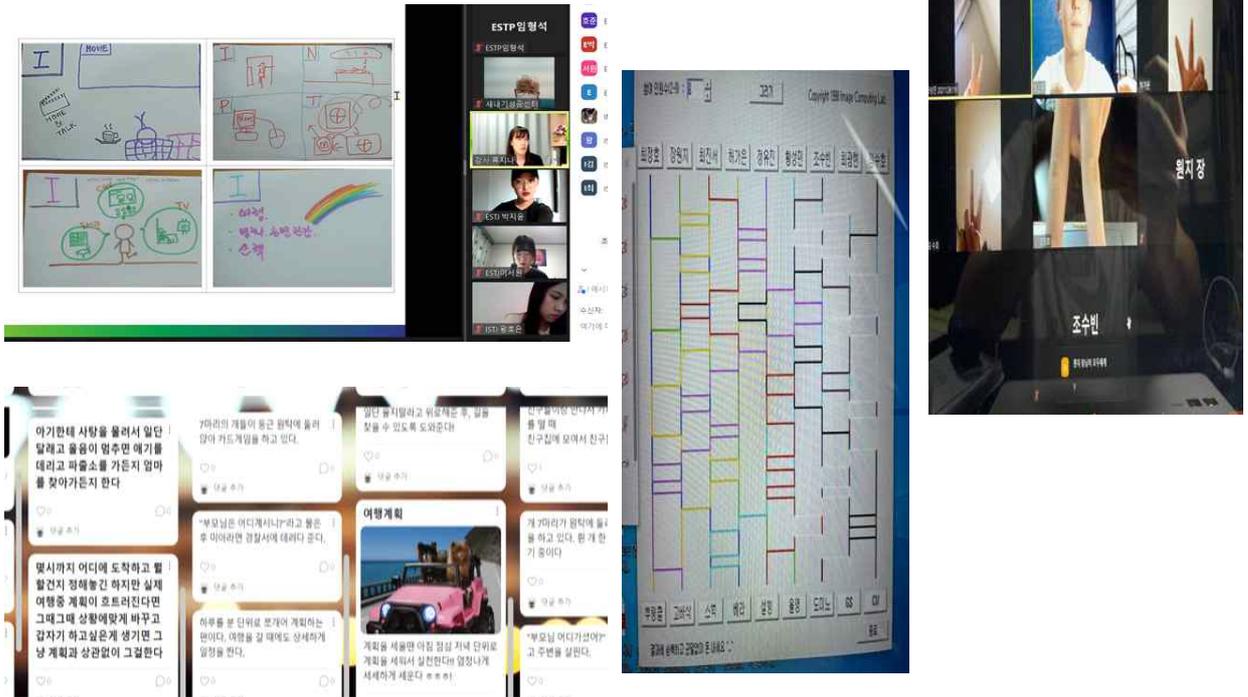
경영학부 “아람”

아람이란 “탐스러운 가을 햇살을 받아 저절로 충분히 익어 벌어진 과실” 이라는 뜻인데, 멘토링 활동이 끝날 때쯤 우리 모두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람’이라는 팀명을 짓게 되었음.

우리활동

5월

7월



-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9명의 멘티를 3팀으로 나누어 활동비를 이용하여 간단히 식사를 즐기며 만남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서로 친밀함을 쌓을 수 있었고, 상호간의 편아한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됨
- 학교에서 주관한 MBTI 집단 상담을 모든 한 팀원을 제외한 모든 팀원들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번 계기로 서로의 MBTI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의 MBTI는 각각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외부에서 따로 하려면 따로 돈을 주고 해야 할텐데,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주어 매우 좋은 기회였음

우리 뭐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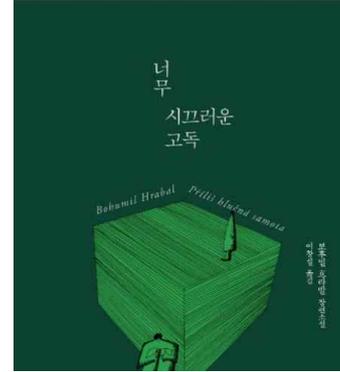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삼십오 년째 책과 폐지를 압축하느라 활자에 찌든 나는, 그동안 내 손으로 압축한 책들과 흡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절망적이고도 시끄러운 세계의 고독 속에서 실존적 해방을 꿈꾼 어느 늙은 몽상가의 불꽃같은 독백!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체코 최고의 작가.

_밀란 쿤데라



현대 체코 문학의 거장,
보후밀 흐라발 필생의 역작

체코의 국민작가 보후밀 흐라발의 대표작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다. 보후밀 흐라발은 프란츠 카프카 이후 밀란 쿤데라와 함께 체코를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힌다. 그는 해외 언론과 작가들에게서 ‘체코 소설의 슬픈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프라하의 봄’ 이후 밀란 쿤데라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프랑스 등으로 망명해 프랑스로 작품을 쓴 데 반해 그는 체코에 남아 끝까지 체코어로 작품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에는 그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 독자들과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작가들의 작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체코에서만 삼백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전 세계 3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밀란 쿤데라는 스스로 체코 작가면서도 흐라발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체코 최고의 작가’라고 칭할 정도로 그에 대한 존경을 숨기지 않았고, 줄리언 반스는 그를 ‘우리 시대에서 가장 세련된 작가’라고 언급했으며, 필립 로스는 그에 대해 ‘적어도 나에게 그는 현대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다. 문학 전문 리뷰 잡지 [트위즈 매거진]은 ‘흐라발은 체코의 프루스트다. 아니, 차라리 프루스트가 프랑스의 흐라발이라 하는 게 옳을 것이다’라고 썼을 정도로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흐라발 본인이 ‘나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고 선언할 만큼 그의 정수가 담긴 작품이며, 필생의 역작이라 불릴 만한 강렬한 소설로 많은 독자와 평단의 사랑과 주목을 받았다. 주한 체코문화원에서는 2014년 보후밀 흐라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열어 그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그의 작품으로는 『영국 왕을 모셨지』(문학동네, 2009), 『엄중히 감시받는 열차』(버티고, 2006)가 있다.

지하실에 스스로를 감금한 한 남자의 끝없는 노동과 고뇌

소설의 화자인 한타는 삼십오 년간 폐지 압축공으로 일해온 인물이다. 그는 어두침침하고 더러운 지하실에서 맨손으로 압축기를 다루며 끊임 없이 쏟아져들어오는 폐지를 압축한다. 천장에는 뚜껑문이 있고 그곳에서는 매일 인류가 쌓은 지식과 교양이 가득 담긴 책들이 쏟아져내린다. 니체와 괴테, 실러와 휠덜린 등의 빛나는 문학작품들은 물론, 미로슬라프 루테나 카렐 잉겔윌러가 쓴 극평들이 들어 있는 잡지들까지. 한타의 임무는 그것들을 신속히 파쇄해서 압축하는 일이지만 그는 파괴될 운명인 폐지 더미의 매력에 이끌린다. 그는 쏟아지는 책들을 읽고 또 읽으며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다. 한타는 마치 알코올처럼 폐지 속에 담긴 지식들을 빨아들인다.

바퀴벌레와 쥐가 들끓는 더러운 환경에서 지내며, 소장에게는 끊임없이 독촉과 욕설을 듣지만 쏟아지는 책들을 생각하면 반복되는 노동도 견딜 만하다. 귀한 책들은 따로 모으다보니 그의 아파트는 수톤의 책으로 가득차 있다. 여차하면 무너질 듯이 아슬아슬하게 쌓인 책들은 그의 고독한 삶에서 나름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즐거움이다. 이제는 노인이 된 그에게도 한때 함께했던 여자들이 있었다. 그와 오래도록 함께 할 뻔했던 어린 시절의 연인 만차,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그와 함께 지내게 된 집시 여자. 그는 그런 추억들을 회상하며 마치 시시포스의 신화처럼 끊임없이 노동을 지속해나간다. 그 일을 견디려면 매일 수리터의 맥주를 마셔야 할 정도로 고되지만, 그는 삼십오 년간 그 일을 해왔으며, 퇴직하게 된다 해도 압축기를 구입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일을 하기를 꿈꾼다.

영원을 꿈꾼 한 사나이가 맞이한 한 세계의 종말 두 세계의 충돌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결코 놓치지 않은 유틘트와 감동

냉소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문체로 서술되는 그의 불꽃같은 독백은 읽는 이를 빠져들게 한다. 이야기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진행된다. 주된 이야기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파쇄 작업을 통한 한타의 사색이지만 중간중간 흥미로운 에피소드들도 끼어든다. 두 진영으로 나뉜 쥐떼들의 끝없는 전투,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뛰어드는 바퀴벌레에 대해 그가 느끼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연민, 그에게 귀한 책을 얻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유틘트 있는 묘사 등 흥미진진한 요소들도 풍부하다. 그리고 과거 그와 마음을 나눈 여인 만차와의 에피소드는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 정도로 유머러스하다. 또한 그와 잠시 동안 같은 공간에 살았던 집시 여자와의 에피소드는 건조한 듯하면서도 정서적 울림을 주고, 끝내는 감동을 선사한다.

여덟 개로 이루어진 각 장은 조금씩 변주될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의 문장으로 시작된다. “삼십오 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삼십오 년째 책과 폐지를 압축하느라 삼십오 년

간 활자에 찌든 나는, 그동안 내 손으로 죽히 3톤은 압축했을 백과사전들과 흡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그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죽는 순간까지 그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그런 그의 삶을 바꿀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어느 날 도시에 나갔다가 자신의 압축기보다 수십 배는 커다란 거대한 압축기와, 신식 시설에서 유니폼을 입고 코카콜라를 마시며 폐지를 압축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한 것이다. 그들은 장갑을 낀 채 폐지를 다루며 휴식 시간에는 곧 떠날 그리스 휴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것은 한타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꿀 전기가 될 만한 사건이 된다.

그는 그곳을 목격한 뒤 자신의 세계가 끝나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책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친듯이 폐지 압축 일에 빠져든다. 그토록 소중히 생각했던 귀중한 책들을 들추지도 않은 채 마치 유니폼을 입은 도시의 압축공들처럼, 효율만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닫게 된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굴욕감에 잔뜩 긴장한 나는 뺏속 깊이 퍼뜩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새로운 삶에 절대로 적응할 수 없을 것이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더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자 대거 자살을 감행한 그 모든 수도사들처럼. 그때까지 삶을 지탱해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다.

노동과 인간 실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유럽 문학 거장이 던지는 시대에 대한 통렬한 풍자

『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겨우 130여 쪽에 불과한 짧은 소설이지만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보후밀 흐라발은 한타라는 한 늙은 남자의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노동해야 하는 인간, 그리고 노동자를 대신하는 기계의 등장 이후 인간 삶의 방식의 변화, 인간성과 실존에 대한 고뇌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철학적 담론으로서가 아닌 살아 있는 인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시대에 대한 통렬한 풍자로서 소설 한 편에 담아내고 있다.

또한 시시포스의 신화를 모티프로 사용하고 있는 이 소설은 영원한 노동과 인간 지성의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타는 끝내 자신의 압축기 안으로 걸어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세계에 종말을 고한다. 이것은 단순히 근대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도 하지만, 방향 없이 진행되어가는 광기 어린 발전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도 있다. 무분별한 발전으로 인해 오히려 퇴보하는, 노예화되고 우둔해진 사회에 대한 정치적이며 철학적인 우화로도 읽힐 수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한 세계의 종말을 목격하는 늙은 몽상가의 긴 명상에 가깝다. 흐라발은 책이 그저 종이조각리로 취급받게 된 냉혹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정신 상태를 섬세한 문체로 그려내고 있다. 그의 사고는 때로 취기와 환각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종일관 명징함을 잃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무리가 아닌 개인에 대해 생각하고 꿈꾸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일깨워준다.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희망적인 부분은 한타가 끝내 사랑과 연민을 놓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설 내에서 코러스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구인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구절은 종래에 다음과 같이 변주된다. 이것은 그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역설적인 따스함과 평화의 숨결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이유다.

새내기 성공센터

대 슬
학 기
생 로
활 운



With KAU 12월 웹진 퀴즈 EVENT

**Q.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상담활동을 포함한 교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비교과(공모전)
프로그램들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참여방법

메일송부 (kaussc@kau.ac.kr)
인적사항은 학번+성명+핸드폰번호

응모기간

2021.12.20 ~ 2022.01.20

당첨자선물

정답자 추천하여 소정의 기프티콘 발송

당첨자발표

With KAU 8호 (01.20)

With KAU 11월 웹진 퀴즈 EVENT 당첨자

**A. 정기간행물실 또는
참고정간실**

2021****83 정○윤

2018****50 이○현

2021****74 민○기

2020****73 이○민

2017****61 김○수



※ 제출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2022년 1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lan	Plan	Plan	Plan	Plan	Plan	1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2 Plan	3 Plan	4 Plan	5 Plan	6 Plan	7 Plan	8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9 Plan	10 Plan	11 Plan	12 Plan	13 Plan	14 Plan	15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2022 새내기 VISION CAMP (13:00)			
16 Plan	17 Plan	18 Plan	19 Plan	20 Plan	21 Plan	22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2021 동계 MBTI 진로특강		2021 동계 MBTI 진로특강		2021-2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23 Plan	24 Plan	25 Plan	26 Plan	27 Plan	28 Plan	29 Plan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 프로그램 상시진행 ----->						
					2021 새내기 대학생활 백서 영상공모전 접수마감	
30 Plan	31 Plan					



[새내기성공센터 유튜브 채널]

Follow

us:

<http://fsc.kau.ac.kr>

now

O N L I N E



KOREA AEROSPACE UNIVERSITY
FIRST YEAR SUCCESS CENTER

